

순천시, 장애 복지 501억 투입...자립·돌봄 '맞춤 지원'

**일자리로 소득 보장·생활 안정
자립주택·발달 장애 통합돌봄
이동·접근 강화 사회참여 기회
위생용품 지원 분기 15만원 등**

전라남도 순천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일류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 다각화에 나섰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5월 기준 지역 내 장애인 수는 총 1만5406명으로, 시는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올해 총 501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이다.

이동권 보장부터 자립 지원, 일자리 제공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등 6개 분야 3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56만1000원에서 최대 209만6000원까지 임금을 지급한다.

또 중장기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장애인 일자리 육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순천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도 운영 중이다.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개별, 주간개별, 주간그룹 등 총 3가지 형태의 통합돌봄서비스를 1:1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바닥면적 300㎡ 미만의 식당, 카페,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동경사로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2026년 1월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품목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방식도 월 5만원에서 분기 15만원으로 변경 지원한다.

기존 지원품목인 기저귀, 패드, 물티슈, 위생장갑, 깔개매트에 마스크와 향균

물비누를 추가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월별 지급 방식에서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배변·배뇨에 어려움이 있는 심한 장애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돌봄과 자립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장애인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남여성생애일자리 박람회' 오늘 팔마체육관서 개최

전라남도 순천시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하는 '2025년 전남여성생애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도와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며,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내 일(Job)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일자리 패러다임에 맞춰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직접 참여 기업 15개

와 간접 참여 기업 100개 등 총 115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순천시를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등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이 함께한다.

박람회는 △여가와 일 △생활과 일 △지역과 일 △생애와 일 등 4개 테마관으로 구성되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설계형 일자리, 세대별 여성 대상 유망직업 탐색, 지역특화 일자리 소개는 물론, 1:1 채용상담, 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질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플라마켓형 창업부스를 통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생애설계를 반영한 진로 로드맵 체험도 제공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만 탐조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 순천만 탐조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의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고, 탐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순천의 탐조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암대학교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30명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고 결과는 6월11일에 개별 통지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순천시청 또는 청암대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2020012@ca.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암대학교 웰니스 문화관광과(061-740-7188)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6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매월 정해진 토요일, 총 12주 61시간 동안 진행되며 순천만자연생태관 2층 생태교실에서 이론 강의와 현장 탐방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조류 분류와 생태 △조류 의사소통 방식 이해 △국내 야생조류 추적 △도요몰래세 탐조 △조류 가라지 부착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조류·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농촌 체류 확산 위한 '체류형 쉼터' 시행

전라남도 순천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리에 접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061-749-5512), 농업정책과(061-749-8677)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3일 순천시 상사면 복지기동대가 관내 한 저소득 가구에서 마당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상사면 복지기동대, 관내 주거환경개선 봉사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복지기동대는 최근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대원 10명은 85세 고령의 거동 불

편 어르신 가정을 찾아 곰팡이로 오염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정리 및 마당에 방치된 쓰레기 약 300kg을 수거했다.

박용하 복지기동대장은 "행정복지센터

의 지원과 대원들의 협조로 이웃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특히 여름철 병해충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방충망 설치·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사면 복지기동대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청년센터, 청년 자립·성장 허브로 자리매김

꿈정의상실·청년카페 등 운영

전라남도 순천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정책 실행의 거점이자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주거·금융·복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면접 정장과 소품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꿈정의상실'은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용적인 지원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를 도입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한 지역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카페에는 직업 상담사를 배치해 상시 취업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SNS 외 청년 스스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꿈정서포터즈'도 운영 중이다. 청년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는, 카페형 오픈라운지, 문화공연장, 공유 부엌, 세미나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돼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찾아가는 지역작가 강좌 운영

전라남도 순천시는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이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5년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 강좌'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강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10·19의 기억'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오는 6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대도서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1948년 10·19사건과 유족

들의 삶을 다룬 소설 '공마당'의 저자인 정미경 소설가를 초청해 순천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사건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 글 쓰는 법까지 배울 예정이다.

정미경 소설가는 국립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이자 10·19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마당'은 2022 아르코 문학나눔도서 선정 및 제3회 부마항

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강좌는 순천시민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되며, 문학을 통해 지역의 아픔과 기억을 성찰하고 소설가에게 직접 창작과 표현의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여 신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신대도서관(061-749-4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